

패션디자인학과 202084028 지민지

업사이클링

1. 업사이클링

2. 사례 조사

3. 작품 기획 - 진행 중인 아이템

4. 새활용 콘테스트

1. 업사이클링





새활용
(UPCYCLE)

업사이클링이란,

업사이클은 'U p g r a d e + R e c y c l e '의 합성어.

쓸모가 없어져 버려진 물건을 다시 새로운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형태나 역할을 가져가되, 더 발전한 제품으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과정이다.

재활용(recycling) -> 새활용(u p c t c l e)



내 손안에 서울

폐기물 + 디자인



상향된 가치의
새로운 제품

소비/폐기/배출

2. 사례 조사

119레오



19REO는 소방관의 근무 환경 실태를 알리기 위해 업사이클링을 적용했다.

방화복의 사용 가능 연한 : 3년
매년 약 1만 벌이 폐기되고 있으며, 소방서는 폐기물 비용을 지불해가며 버리고 있다.

이를 119REO가 무상으로 수거 > 세탁 후 임가공
자활 > 방화복을 분해 > 가방, 지갑, 팔찌 제작.

방화복의 기본 소재 : 아라미드(aramid fiber)

- 굉장히 튼튼하다.
- 제품을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다.

컷더트래쉬

CUT+HETRASH

LOGIN / JOIN US
MY PAGE / BASKET (0)
DELIVERY / BOOK MARK

ABOUT
STORE
COMMUNITY
LOOKBOOK

➤ CS CENTER
➤ BANK INFO

CUT+HETRASH
go store

업사이클링으로 버려진 쓰레기에 힙한 반란을 주도하는 패션 브랜드 '컷더트래쉬 (Cutthetrash)

컷더트래쉬는 바닷속 부유 폐기물을 업사이클링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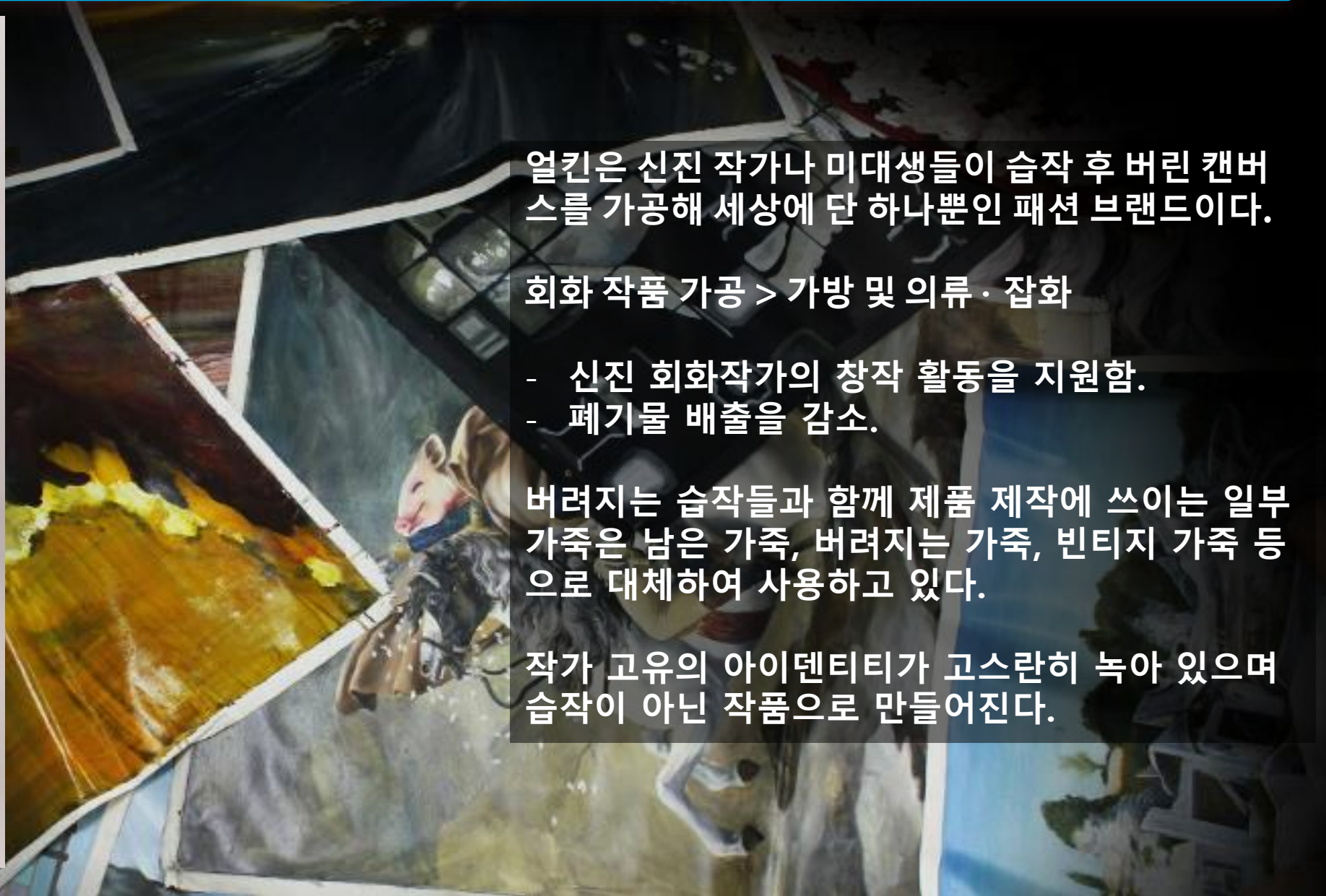
페그물로 만들어진 마리너백(MARINER)

- 우수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 폐기물로 만들었다기엔 스타일리시하고 실용적이다.
- 자투리 천을 함께 사용하여 가치를 더 했다.

수익금을 환경 단체에 기부한다.



얼킨



얼킨은 신진 작가나 미대생들이 습작 후 버린 캔버스를 가공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패션 브랜드이다.

회화 작품 가공 > 가방 및 의류 · 잡화

- 신진 회화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함.
- 폐기물 배출을 감소.

버려지는 습작들과 함께 제품 제작에 쓰이는 일부 가죽은 남은 가죽, 버려지는 가죽, 빈티지 가죽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작가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고스란히 녹아 있으며 습작이 아닌 작품으로 만들어진다.

몽세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셜 미션 아래 세워진 패션 브랜드.

몽세누 만의 재활용 폴리 에스터

- 플라스틱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개발된다.
- 제품의 표현과 쓰임에 따라 면 등의 다른 소재와 혼합하여 만들어 진다.

끊임없이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끊임없이 생산되어지는 패션시장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인 모세누의 핵심 가치이다.

wherever, everywhere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연에 맞출 뿐입니다."

코오롱스포츠 22FW Collection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극한의 자연환경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Your Best way to nature"

자연안에서의 인간의 삶을 중시하며 자연과 인간의 소통을 브랜드의 주요 철학이다.

2007년부터 재활용섬유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
에코프렌 친환경 소재 출시.

대나무, 코코넛, 화산재 미네랄 등 친환경 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네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 한 자연을 만나다

#UNEXPECTED:VIEW
2022 FW COLLECTION

네파의 시작은 자연.

네파의 브랜드 네임은 자연환경 보호옹호론자의 약자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며 함께 상생하고 하는 철학에서 출발했다.

자투리 방수원단을 사용하여 우산 커버를 제작하고, 이를 일회용 비닐 우산 커버 대신 사용하게 하는 '레인트리 캠페인' 진행.

나이키

스포츠를 즐기며 살아가는 지구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제품 디자인 과정 등 탄소 제로와 폐기물 제로 'MOVE TO ZERO'

나이키 리사이클링&기부, 나이키 리페어, 리퍼비시

지속 가능한 소재로는 플라이니트, 플라이레더, 에어, 재활용 폴리에스터, 지속가능한 면 소재, 재활용 나일론을 출시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컬렉션이 나온다.

'FORWARD' 컬렉션 : 기존 니트 플리스 대비 75% 적은 탄소를 배출하는 컬렉션.

FREITAG

프라이탁

오래된 트럭 방수천을 기본 원단으로 삼아 자전거 바퀴 속 고무, 폐차 안전벨트를 더해 프라이탁의 가방을 만듭니다. 낡아 버려질 것들이 프라이탁 형제에 의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방으로 다시 태어나 실용적이면서도 도시적인 감각을 담은 프라이탁의 가방으로 완성됩니다.



2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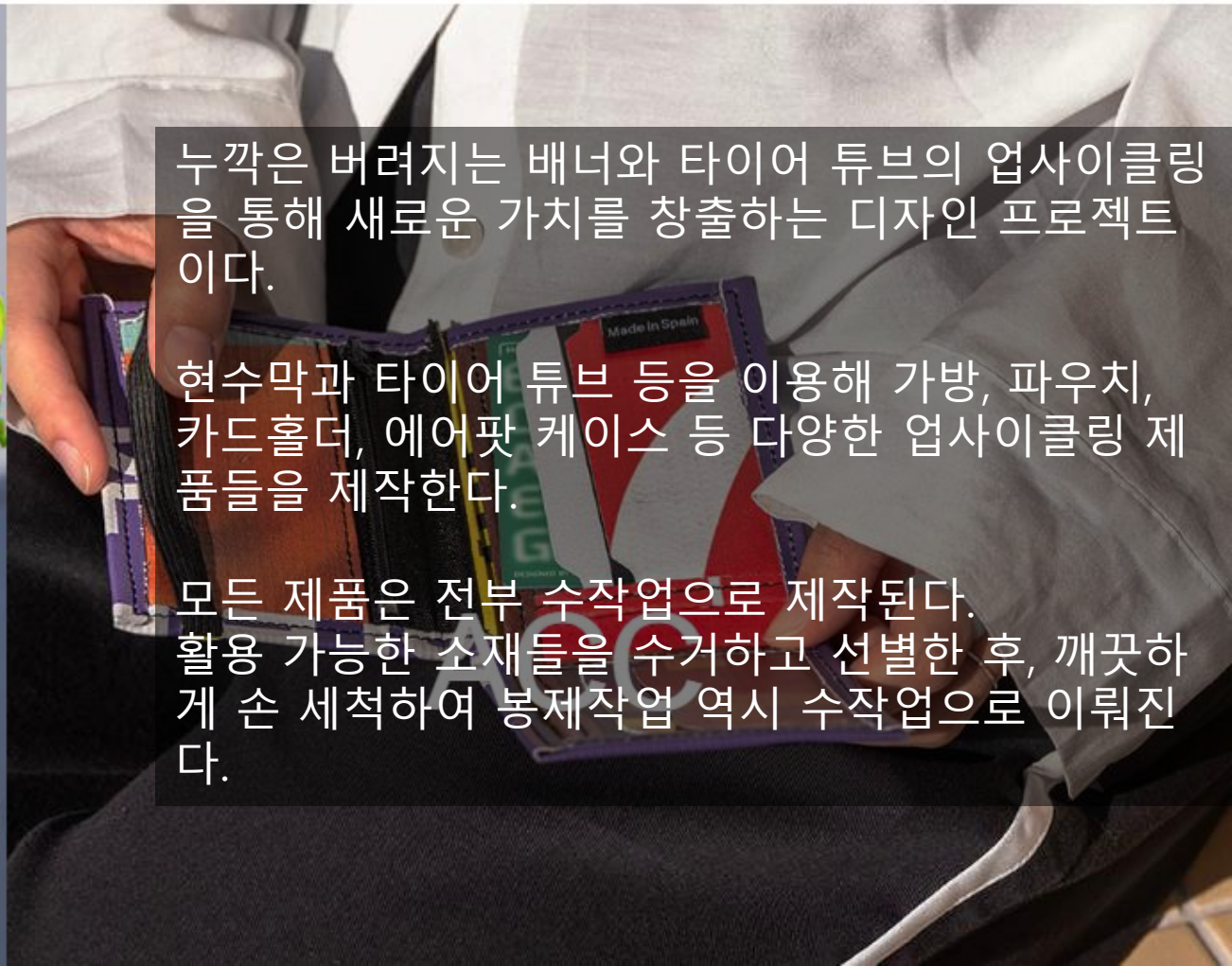
누각



Nukak'



BAG



누각은 버려지는 배너와 타이어 튜브의 업사이클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인 프로젝트이다.

현수막과 타이어 튜브 등을 이용해 가방, 파우치, 카드홀더, 에어팟 케이스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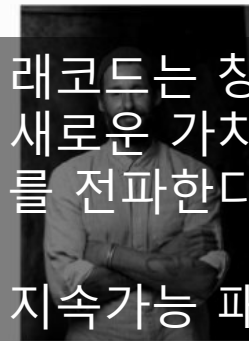
모든 제품은 전부 수작업으로 제작된다. 활용 가능한 소재들을 수거하고 선별한 후, 깨끗하게 손 세척하여 봉제작업 역시 수작업으로 이뤄진다.

RE;CODE

10th anniversary Interview

10년간 달려온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위한 이야기

David de Rothschild & Hyundai Motor
데이비드 드 로스차일드 & 현대자동차



Jo Nagasaka
조 나가사카



한경애
Han Kyung Ae



래코드는 창의적인 리(RE)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 하고 지속가능한 문화(CODE)를 전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속가능 패션 서비스 BOX ATELIER 진행하고 있다

with **marie claire**

쉽고 빠르게
1:1채팅상담

×

3. 작품 기획

에코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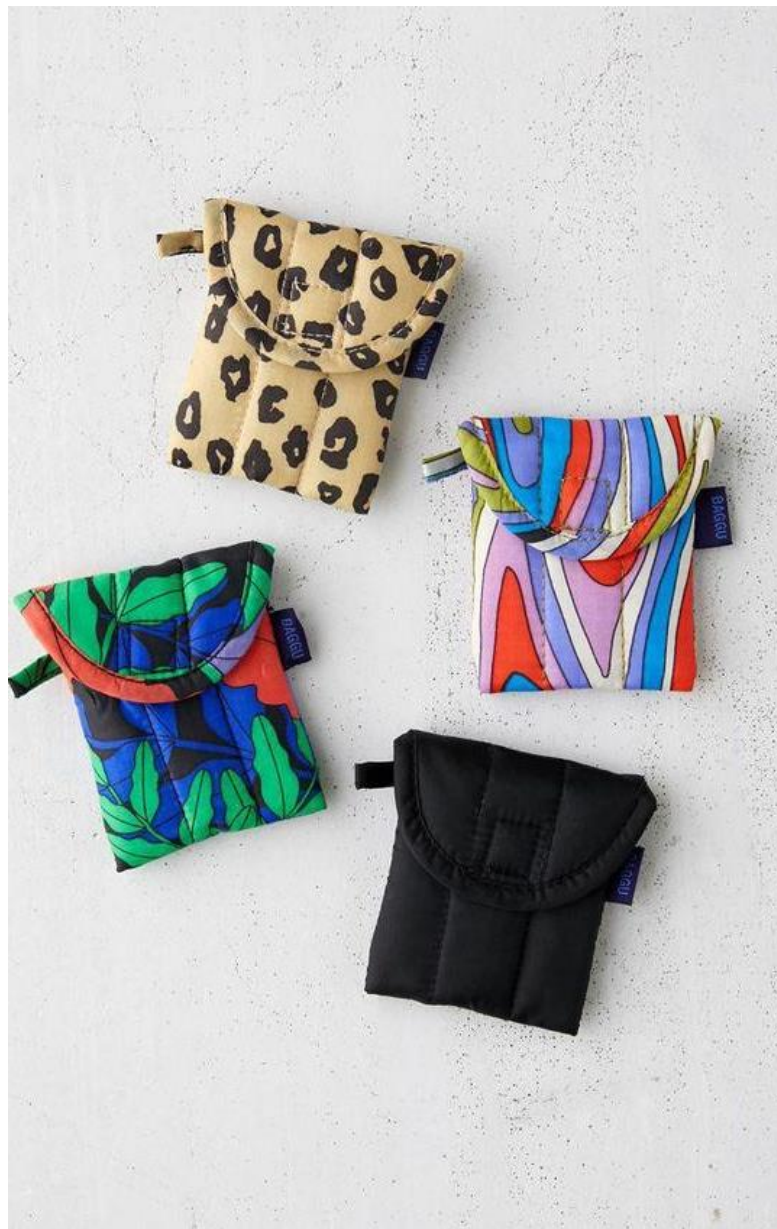


크로스백









키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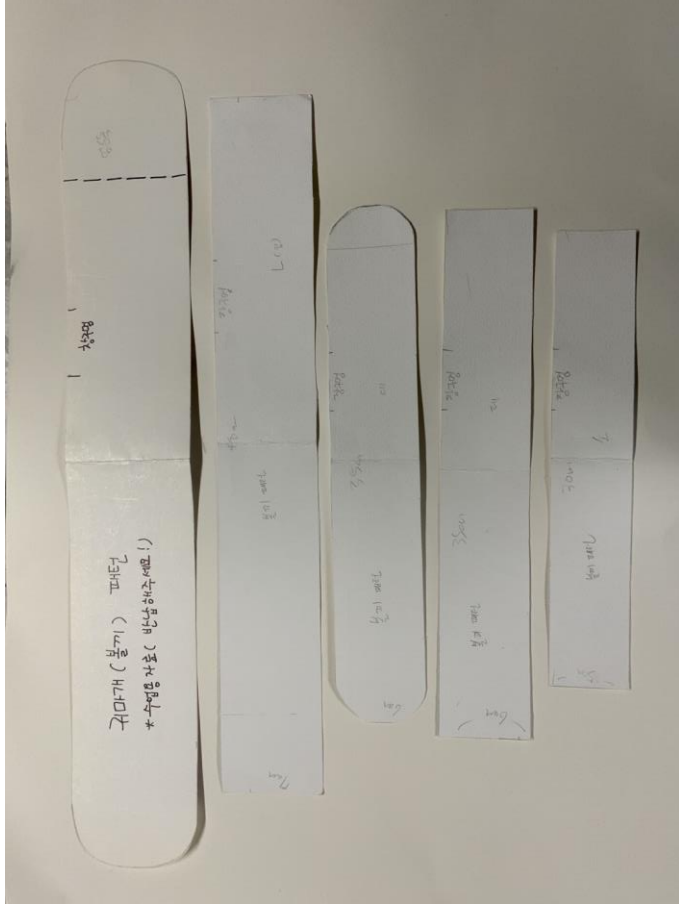


패션상품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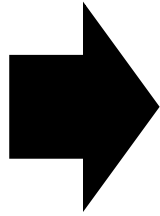
잉여 소재 : 사용하지 않는 스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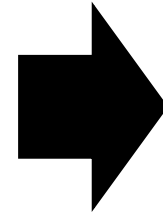
잉여 스와치를 활용한 [볼끼] 제작



볼끼 패턴



원단 선택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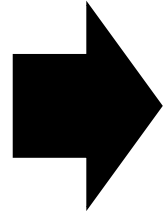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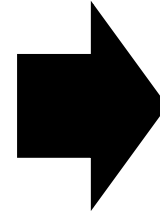
잉여 스와치를 활용한 [배자] 제작



스와치 원단 선택



패치워크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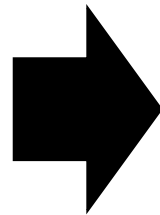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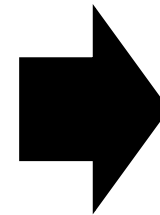
잉여 스와치를 활용한 [에코백 1] 제작



스와치 원단 선택



패치워크



제작

완성



앞



뒤

잉여 스와치를 활용한 [에코백 2] 제작



스와치 원단 선택



패치워크



제작

완성



4. 재활용 콘테스트

UP-DENIM

UP-CYCLING + DENIM = UP-DENIM

◆아이템 : 에코백, 배자

◆컬러 : 블루, 블랙

◆디테일 : 다양한 자투리 원단을 활용한 패치워크

자투리 원단을 사용하여 업사이클링 개념을 도입한 재활용의 미(美)를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1. 에코백

자투리 데님 원단을 패치워크하여 실용적인 [에코백]을 제작하였습니다.

2. 배 자

다양한 스와치와 자투리 원단을 사용하여 전통미와 현대미가 공존하는 [배자]를 업사이클링 하였습니다.

에코백, 배자





UP-DENIM 입선

UP-DENIM

(사후비밀)

자민지

한국문화재단

입선

제 2022-93호

상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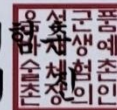
대학·일반부
입선

지민지

위 사람은 음성구품바재생예술체험존 재
생예술 콘텐츠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된
<2022 새활용 콘테스트>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3일

음성군품바재생예술체
운영대표 강 희



패션디자인학과 202084028 지민지

감사합니다.